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

최병두*

요약 이 논문은 초국적 이주 분석을 위한 기존 연구방법론으로 관계이론을 재고찰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유의성과 한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초국적 이주에 관한 기존 이론 또는 연구방법론들은 흔히 행위이론, 구조이론, 그리고 이들 간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관계이론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연결망 이론, 사회적 자본론, 네트워크이론, 이주체계이론, 그리고 초국적이주이론 등을 포함하는 관계이론은 행위/구조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연계성을 강조하지만, 연계에 관한 서술이 다소 모호하고, 또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이러한 관계이론에 대한 방법론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 논문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의 3가지 주요 개념들, 즉 행위자-네트워크, 번역, 위상학적 공간 개념 등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개념들이 초국적 이주 연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주요어 초국적 이주, 관계이론, 행위자-네트워크이론, 행위자-네트워크, 번역, 위상학적 공간

1. 서론

지난 10여 년 동안 초국적(또는 국제) 이주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쏟아져 나왔지만 이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틀 또는 연구방법론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 물론 초국적 이주에 관한 이론들은 개별 행위자의 의사결정과 이주 행태에 관심을 가지는 행태주의적 접근에서부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대구대, 지리교육학,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편집위원장, bdchoi@daegu.ac.kr

터 이주자의 개인적 관계망을 강조하는 사회자본론, 지역이나 국가의 압출-흡인요인을 강조하는 신고전적 이론, 송출국이나 수용국의 노동시장에 초점을 둔 신경제학적 이론 또는 노동시장분절론, 그리고 역사-구조적 배경을 강조하는 세계체계이론, 또한 보다 최근 이주네트워크나 이주체계를 주목하는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 또는 접근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Massey et al, 1998; 설동훈, 1999; 최병두, 2011). 그러나 기존의 어떤 이론이나 연구방법론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초국적 이주를 설명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또한 다소 진부한 것처럼 보인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로 표기함)은 초국적 이주에 관한 기존 이론이나 방법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하는데 매우 유의한 이론적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이론은 특히 사람과 사물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며, 이들 간에 사회공간적으로 형성·재형성되는 관계망, 즉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그 효과로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1980년대 프랑스의 과학기술연구 분야에서 등장한 이 이론은 내적으로 철학적 이론체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응용 범위를 지리학, 도시학, 환경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등 많은 학문분야들로 확산시켜 왔다. 이에 따라 이 이론을 활용한 경험적 연구의 주제들도 기술발전, 조직관리, 환경계획, 보건관리, 도시공간, 교육과 문화 미디어, 페미니즘 등 매우 다양해 졌다.

물론 ANT는 사회공간적 현상들과 이 현상들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실체적 이론이라기보다는 이들에 접근하기 또는 이해하기 위한 연구방법이나 이론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초국적 이주에 관한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들 가운데 이 이론을 응용한 연구 사례도 거의 없었다는 점도 다소 의아스럽다. 그러나 이 이론이 실체적 이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초국적 이주를 포함하여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이나 과정들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 또는 통찰력을 함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즉 ANT는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행위와 구조(미시와 거시, 사회와 자연 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 간에 어떤 사회공간적 연계

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구축된 네트워크는 어떠한 효과를 생성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 이론은 어떤 연구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에서 나아가 공간적 측면에서 사람과 사물들 간 관계로 구성된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론이나 존재론으로서 그 유의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김환석, 2010; 최병두, 2015).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의 이분법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된 관계이론의 유의성과 한계를 검토한 후,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 ANT의 주요 개념적 특성들을 살펴보고, 초국적 이주 연구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초국적 이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법론이나 이론들이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를 살펴보면서 관계이론의 유형에 속하는 여러 이론들을 재검토한 후, ANT를 구성하는 주요한 개념적 특성으로 행위자-네트워크, 번역과 동맹, 위상학적 공간 개념 등을 고찰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ANT 자체의 유의성과 한계에 관한 논의라기보다 이 이론이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2. 관계이론에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으로

1) 초국적 이주 연구방법론의 유형화

1990년대 이후 초국적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누적되었고, 또한 이러한 연구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관심도 점차 증대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초국적 이주에 관한 방법론적 검토를 제시한 연구자로 설동훈(1999)에 의하면, 국제 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이론은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 방법론은 배출-흡인이론 및 비용-편익분석과 같이 초국적 이주자의 행위 차원을 고려한 이론, 노동시장 분절이론이나 세계체계론과 같이 초국적 이주의 구조적 배경에 관한 이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 이론이나 사회적 자본 이론처럼 행위와 구조 차원을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이론 등으로 구분된다. 행위 차원과 구조 차원의 구분은 사회학 나아가 사회과학 일반에서 흔히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 또는 미시적/거시적 접근으로 이원화된 이론체계를 반영한 것이고, 관계이론은 이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대안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설동훈, 1999: 37-62; 최병두, 2011: 12-14).

이러한 유형 분류에서 관계이론은 기든스(Giddens)의 구조화(structuration) 이론 및 사회연결망(social network) 이론에 바탕을 두고, 초국적 이주의 행위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또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결합시키고자 한다. 구조화이론에 의하면, “구조는 행위의 매개체이며 그 결과라는 구조와 행위의 이중성 개념”이 강조된다. 즉 “사회구조는 행위자의 의도되었거나 의도되지 않은 행위의 결과이고, 행위자의 행위는 환원될 수 없는 구조적 맥락을 전제로 하고, 구조적 맥락에 의하여 매개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즉 “행위자와 구조는 각각 서로의 결과”로 간주되며, 이러한 점에서 행위와 구조의 이중성(duality)이 강조된다(설동훈, 1999, 35. 또한 기든스 1991 참조). 국제이주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구조화이론에 바탕을 둔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관심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로 새머스(2013, 65)는 구조화이론에서 강조되는 구조의 이중성으로 인해 ‘사회체계의 구조적 특성은 사회체계가 순환적으로 조직하는 실천의 매개체이자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행위주체는 구조, 제도, 다른 행위주체, 사회네트워크 등을 만들어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로 행사한다. 예로 행위주체로서 이주자와 이주 집단은 실제로 구조와 제도와 다른 행위주체들과 관계 속에서 이들에 따르거나 또는 이들에 반하는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초국적 이주에 관한 이러한 이론 또는 연구방법론의 분류는 그 이후에도 다소 변형된 방식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었다. 예로 김용찬(2006)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에서 제시된 국제 이주에 관한 분석방법으로, 기존의

경제이론(예로 신고전주의 경제학, 이주의 신경경제학, 노동시장분할론 등)과 역사구조적 접근(마르크스 정치경제학, 세계체계론 등)을 검토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국제이주에 관한 포괄적 분석을 위한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 일반체계이론을 국제이주분석에 원용한 ‘이주체계 접근법’을 제시한다. 또한 전형권(2008)은 국제이주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재검토하면서 각 이론이 가지는 분석적 유용성과 한계를 고찰한 후 대안적 분석 모형으로 그가 지칭한 ‘초국가형 디아스포라’의 통합모형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관한 유형 분류와 대안의 모색은 설동훈(1999) 연구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로, 전형권(2008)은 ”신고전경제학의 행위자 중심 시각이나 세계자본주의 체제나 일국의 노동시장분절 등 구조적 요인만으로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으며, 행위자와 구조를 통합하는 관계론적 시각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

초국적 이주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나 방법론에 관한 유형 분류와 이에 바탕을 둔 각 이론들의 고찰은 사실 국내에서 누적된 연구 성과에 근거하기보다는 대체로 서구에서 제시된 유형 분류를 소개 또는 재검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 사회는 초국적 이주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길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 성과도 많이 누적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방법론의 고찰도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예로 포테스(Portes, 1981)는 1980년대 초에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들을 재검토하면서 이주의 거시적 구조와 함께 행위자들의 사회연결망에 바탕을 둔 관계적 측면도 연구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카슬과 밀러(Castles and Miller, 1993; 2009)도 초국적 이주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고, 매시 등(Massey et al., 1998, 제2장)도 본격적으로 국제이주에 관한 다양한 이론들을 유형화하여 검토·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매시 등(Massey et al., 1998)이 유형화한 국제이주이론에는 거시적 및 미시적 신

1 그 외에도 초국적 이주에 관한 이론 또는 방법론들을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로 석현호(2000)를 들 수 있다. 그는 매시 등(Massey et al., 1998)이 제시한 분류방식, 즉 초국적 이주의 발생에 초점을 둔 연구와 영속화(또는 지속성) 과정에 관심을 둔 연구, 그리고 이들에 더하여 이주의 마지막 단계, 즉 적응(정착)론을 추가하여, 각 단계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제시하였다

고전경제학, 이주의 신경제학, 노동시장분절론, 역사-구조적 이론과 세계체계론 등과 국제이주의 지속성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으로 사회적 자본론, 이주 네트워크이론 등이 고려되었다.

초국적 이주에 관한 이러한 유형구분은 서구 학계에서도 반복적으로 재론되고 있다. 예로 쿠레코바(Kurekova, 2011: 14)는 이주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으로 신고전이론, 인적자본론, 신경제론, 세계체계론(역사구조적 접근), 이중노동시장론 등을 제시하고, 이주의 지속성 및/또는 흐름의 방향성에 관한 이론으로 네트워크이론, 이주체계이론, 초국적이주이론 등을 포함시켰다. 새머스(2013)는 국제이주이론을 분석의 수준에 따라 크게 결정론적 이론과 통합적 또는 혼합적 접근으로 구분하고, 전자 유형의 이론으로 배출흡입접근(라벤스타인), 신고전경제학, 행태주의, 신경제학, 이중노동시장과 노동시장 분절론, 구조주의적 접근, 그리고 후자 유형의 이론으로 사회네트워크 분석, 초국가주의 논의, 젠더중심적 분석, 그리고 구조화 이론 등 총 10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다른 한편 오렐리(O'Reilly, 2012)는 국제이주에 관한 이론들을 미시경제적 이론, 세계체계이론, 이주체계와 네트워크이론 등으로 구분하고 미시적 이론과 거시적 이론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면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국제이주 이론의 유형화는 분류 기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실제 내용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초국적 이주이론에 관한 유형 분류와 이에 바탕을 둔 각 이론들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러한 유형 분류의 타당성이나 각 이론들의 유의성과 한계를 고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 분류에서 예로 설동훈(1999)에 의해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을 연계시키는 관계이론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연결망 이론과 사회적 자본론, 그리고 매시 등(Massey et al., 1998)에서 지속성과 흐름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유형으로 분류되는 네트워크이론 및 이주체계이론, 초국적이주이론 등을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유형의 이론은 다른 유형의 이론들, 즉 행위이론과 구조이론 또는 결정요인론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여러 이론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들을 연계시켜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방법론으로 나아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성(사회적 연결망이나 네트워크 또는 이주체계 등)을 강조하는 유형의 이론들이 아무런 문제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관계이론의 유형에 속하는 이론들이 가지는 유의성을 살펴보면서, 다른 한편 이들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ANT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관계이론들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관계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여러 이론 또는 연구 방법론들은 예로 연결망,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이주체계, 혼종성 등 다양한 용어들로 지칭되는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이론적으로 행위와 구조, 미시와 거시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한편, 관계성에 주목하면서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주제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관계이론은 구조화이론에 바탕을 두고 행위와 구조(미시와 구조)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들 간을 연계시키는 개념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조화이론에서 구조는 어떤 사회체계가 가지는 속성으로 정의되지만, 또한 이를 매개하는 매체들을 통해 그 속성이 발휘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기든스, 1991). 이러한 점에서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조와는 구분된다고 할지라도, 이들 간 이중성(duality)의 관점에서 구조 역시 어떤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² 즉 행위와 구조 간의 이중성에서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다양한 구조적 매개물들, 예로 자원, 제도, 사회네트워크 등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행위자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화이론에 준거한 관계이론들이라고 할지라도 관계성을 설정하는 대상이나 수준 또는 의미, 그리고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르며, 또한 한 이론 내에서도 관계성의 개념적 적용 범위가 다

2 구조화이론에 의하면, “구조는 사회적 행위를 형성하는 ‘규칙과 자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사회적 행위를 제한만 하기보다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새머스, 2013, 65).

양하여, 때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구조화이론에서, 관계성이란 기본적으로 행위와 구조 간 관계를 상호 매개하는 이중성을 전제로 하며, 행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 간의 상호행동이나 의사소통, 또는 사람과 다른 사물들(예로 자연)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조화이론에 바탕을 둔 국제이주에 관한 관계이론들은 행위와 구조를 연결시키기 위한 이론적 장치보다는 개인이나 집단(국가나 지역) 간 사회(공간)적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 물론 이러한 점은 이론적 틀의 구축을 위한 구조화이론과는 달리 국제이주에서 관계이론들은 경험적 연구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화이론은 행위와 구조 간 “상호작용의 구체적 매개과정을 엄밀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념화의 수준에만 머무르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설동훈, 1999, 35).

이러한 구조화 이론과 유사하게 사회연결망이론 역시 사회(공간)적 네트워크에 의한 연결의 패턴에 주목하며, 행위와 구조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매개하면서 그 결과로 각각의 특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사회적 연결망(또는 네트워크)이론 역시 구조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매개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 이론은 “미시적인 행위자가 일상생활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의 망이 사회구조의 속박(constrains: 또는 제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이 관계의 망은 매 순간 거시적인 사회구조를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용학, 1992: 253; 설동훈, 1999: 36 재인용). 특히 여기서 사회구조는 사회적 관계의 형태 혹은 사회적 연결의 패턴을 의미하며, 이의 기본적 성격은 인간[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연결망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구조는 행위자와 구분되는 다른 어떤 실체가 아니라 행위자들 간 사회적 연결망의 효과로 이해된다. 즉 구조화이론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연결망이론은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을 벗어나서 이들을 네트워크의 효과로 이해하는 ANT로 나아갈 수 있는 개념적 바탕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조화이론에서 행위와 구조의 관계성 또는 매개과정이 모호하게 개념화된 것처럼, 사회연결망이론 역시 연결망의 개념이 다중적이고 다소 혼란

스럽게 규정된다. 즉 이 이론에서 ‘연결망’은 흔히 송출국과 유입국에서 이주민과 앞선 이주자 또는 선주민들을 어떤 사회적 ‘매개물’들을 통해 연결되는 과정 또는 패턴으로 정의된다(Massey et al., 1998). 그러나 또 다른 맥락에서 사회적 연결망은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로 대표되는 ‘구조’와 이주노동자라는 ‘행위자’로 구성되는 국제노동력 이동 체계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로 이해된다(설동훈, 1999: 47). 이러한 점에서 이 이론에서 ‘사회연결망’은 한편으로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연대 또는 결합으로 간주되며, 다른 한편으로 이는 구조와 행위자를 매개하는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이론에서 연결망이란 국제이주에서 유입국의 정보와 정착에 필요한 자원을 전달하는 통로를 지칭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연결망이론은 구조화이론과 마찬가지로 행위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지만, ‘사회적 연결망’의 개념은 사람들 또는 국가들 간의 연계와 구조와 행위 간의 관계를 동시에 함의하면서, 그 의미가 모호해진다.

국제이주에 관한 관계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자본이론은 국제이주 과정의 주체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보유 또는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을 가정한다.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 간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관계망 또는 상호 인식과 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Bourdieu, 1986; 설동훈, 1999: 52 재인용). 이러한 개념 규정에서 사회적 자본 역시 이중적으로 정의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자본은 한편으로 행위의 차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러한 관계망이 제도화된 사회적 자원으로, 그 관계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Coleman, 1988). 여기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망의 실질적인 속성이라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행위자의 능력이나 이를 제도화한 (구조적) 자원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적 연결망이론이나 사회적 자본론의 연장선 상에서 제시되는 이주네트워크이론과 이주체계이론도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하겠다. 이 이론

에서 이주 네트워크는 주로 이주과정을 매개하는 혈연관계나 친구관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이 이론에서는 흔히 ‘네트워크에 의해 매개된 이주’(network-mediated migration) 그리고 이에 따른 이주사슬(chain migration)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주네트워크이론에서 이러한 연결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심지어 혼란스러운 관계들을 포함한다. 즉, “네트워크는 친척 관계에서부터 제도들 간의 관계, 제도와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공식적일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일 수도 있으며, 명시적일 수도 있지만 비밀스러울 수도 있고, 먼 거리에 걸쳐 있을 수도 있지만, 국지적일 수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결속’을 보일 수도 있지만, 강한 결속을 보일 수도 있으며, 균형 잡힌 권력 관계와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불균형적 권력 관계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다”(새머스, 2013: 67). 이러한 개념 규정에서, 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제도들 간의 관계, 나아가 제도 자체들 간 관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개념은 모호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유형 확장과 관련시켜 보면, 이주체계이론은 국가라는 제도들 간의 관계성 또는 네트워크에 주목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체계이론은 국제이주가 이루어지는 유출국과 유입국 간의 제도적 관계를 강조하며, 국제이주는 이 양국들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들을 변화시키는 매개물로 간주된다. 양 국가는 정치, 경제, 사회, 인구학적 환경을 배경으로 국제이주자를 송출하고 수용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의 이주체계를 형성하게 된다(전형권, 2008: 275). 또한 이러한 이주체계의 형성을 통해 전개되는 양국 간 이주는 양국의 사회공간적 환경을 재구성하게 된다(de Haas, 2008). 이주체계이론은 국제이주의 형성 및 지속과정에서 국제이주가 이루어지는 양국의 사회공간적 배경을 단순히 압출-흡인요인으로 설명하기 보다는 상호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관계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 특히 국제이주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로 이주 수용국의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지만, 이주체계접근법은 이주 송출국의 환경적 특

성과 그 변화도 연구과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이주수용국과 송출국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이들 간 관계를 고찰한다(김용찬, 2006: 4).

그러나 초국가주의 또는 초국적 이주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이주체계이론은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으로 비판된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우선 개별 국가를 영역적 실체로 이해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반면, 초국가주의는 “국민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들 또는 제도들을 묶어주는 다층적 연계와 상호작용”을 의미한다(새머스, 2013: 69). 초국적이주 이론은 국가라는 제도의 방법론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국제이주와 정착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공간적 관계성 자체에 초점을 둔다. 즉 이 이론은 국제이주를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가 국경을 가로질러 유동적으로 구축·유지하는 사회공간적 네트워크들과 혼종적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초국적 이주 이론은 국가라는 제도를 무시함으로써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과 이에 바탕이 되는 영역성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점을 유발한다. 즉 초국가주의 또는 초국적 이주 이론은 방법론적 국가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해 초국적이주과정에서 공간과 스케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제대로 개념화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기존의 관계이론 유형으로 분류되는 국제이주 이론들은 다양한 용어들과 의미들로 관계성에 주목하며, 그 이전의 국제이주 이론이 가지는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념적 혼돈을 초래하거나 또는 기존 이론의 한계를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관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들을 하나로 통일하고, 이 용어가 기존의 이론들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었던 의미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념화해야 할 것이다. 기존 관계이론에서 사용된 다양한 용어들 가운데 연계망이라고 번역되는 ‘네트워크’는 여전히 유용한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개념은 국제이주 연구뿐 아니라 사회과학 전반에서 구조와 행위, 거시와 미시, 글로벌과 로컬 등의 이원론을 극복하고 이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는 다양한 의미(예로, 구조와 이주자의

행위를 매개하는 것, 송출국과 수용국 간 제도적 관계 또는 이들 내에서 또는 이들 간에 이주자와 앞선 이주자 또는 선주민들을 잇는 연결고리, 이러한 연결고리에서 친척이나 친구 등 사람들 간 네트워크, 또는 이주자들의 민족성이나 정체성과 같은 문화적 네트워크, 이러한 네트워크에 함의된 상호 인정이나 신뢰관계 등등)를 가진다. 이로 인해 네트워크의 개념이 매우 혼란스럽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개념은 특정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보다는 오히려 더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얼버무리는 우산(umbrella) 개념이 되기도 한다”(새머스, 2013: 68). 따라서 국제이주에 관한 대안적 이론에서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이 용어를 보다 정교하게 개념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트워크의 개념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초국적 이주가 전개되는 과정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이다. 초국적 이주와 정착 과정은 분명 국가 간 경계를 가로지르는 공간적 이동과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장소나 공간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라 형성되는 지역적 정체성의 전환 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개념은 흔히 초공간적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인식됨에 따라, 공간적 이동성이나 영토성은 마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이로 인해, 새머스(2013: 68)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이 강조될수록 공간의 중요성이 퇴색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스미스(Smith, 2005: 238)의 주장에 의하면, “초국가주의에서 혼종성, 유동성에 대한 찬양은 공간적 이동성이나 경계 넘기가 아무리 초국가적 주체들의 가족, 공동체, 장소 만들기 관습을 특징짓더라도 그 주체들이 여전히 특정 공간이나 정치 상황과 특수한 역사적 맥락 내에서 계층화, 인종화, 젠더화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만다”고 주장된다.

물론 초국적 이주의 배경이 되는 세계화 과정은 국가 및 지역들 간 상호의존성을 촉진하고 개별 국가의 영토성은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화 과정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실시간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지역들 간 소통과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제 공간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도록 한다. 그

리나 이동성 그 자체는 여전히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비록 초국적 이주자라고 할지라도 일상생활은 여전히 일정한 장소와 공간환경을 배경으로 영위된다. 이러한 점에서 최병두 외(2011)는 초국적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들을 개념화하기 위하여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다른 한편 어리(2014)는 현대사회에서 초국적 이주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동성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모빌리티 패러다임'이라고 지칭한 용어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이론적, 방법론적 지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들이 제시한 모빌리티 패러다임은 이동성 증대와 관련된 네트워크의 개념을 포함한다. 즉 이 패러다임의 기본전제 가운데 하나는 "네트워크화된 사회생활의 본질 때문에, 먼거리를 잇는 커뮤니케이션과 이동이 '필수적'이게 될 것"이라고 점이다(어리, 2014: 375). 이러한 점에서, 새머스(2016)의 우려와는 달리, 네트워크의 형성은 공간적 이동성을 촉진하고, 또한 역으로 이동성의 증대는 네트워크의 확장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공간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 동안 공간은 물리적 거리나 부피로 측정되는 절대적 공간 또는 좌표체계에서 사물의 위치에 앞서 주어지는 선형적(또는 유클리드) 공간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공간(그리고 시간)의 개념은 교통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시공간적 압축으로 그 기능이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은 단순히 이러한 물리적, 선형적 공간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들의 위상학적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유클리드공간 개념에서 한 사물은 다른 사물들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속성을 가지며, 또한 이들이 위치한 공간과는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위상학적 공간에서 한 사물의 속성은 다른 사물들과의 사회공간적 관계성을 통해 형성되며, 따라서 공간과 분리되지 않으며 공간과 더불어 형성·변화·소멸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공간의 중요성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새롭게 개념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하겠다.

3) 대안적 연구방법론으로서 행위자-네트워크이론

초국적 이주 연구를 위한 대안적 이론 또는 방법론은 이주과정에서 형성·유지·해체되는 다양한 유형의 관계성에 주목하면서도, 기존의 관계이론들에 내재된 문제성을 해소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관계성의 개념은 구조화이론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행위와 구조가 상호작용(이중성)을 통해 서로를 만들어 낸다는 점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사회연결망이론에서처럼 사회구조는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또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발현적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도록 한다. 또한 초국적 이주에 관한 경험적 연구에서 관계성은 초국적 이주자가 맺고 있는 네트워크들에 좌우되는 능력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거나, 또는 초국적 이주를 개별 국가의 특성이 아니라 양국 간의 제도적 관계 또는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이주체제로 분석하도록 한다. 최근 이러한 관계성에 대한 강조는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이론 및 철학 전반에서 행위와 구조, 거시와 미시, 지구적인 것과 국지적인 것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대안적 방법론을 모색하도록 한다. 초국적 이주에 관한 대안적 이론은 기존의 관계이론이 추구했던 행위와 구조(거시와 미시 등)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이들 간 관계성을 방법론적으로 뿐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경험적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의 모색에서, ANT는 초국적 이주에 관한 관계이론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한편,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발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ANT는 1980년대 과학철학 분야에서 과학적 지식을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 포스트구조주의 철학 및 기호학 등을 포용하면서 사회이론 일반으로 확장되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많은 연구주제들에 응용되고 있다. 이 이론은 자연의 내재적 질서를 특권화하는 전통적 과학주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단순히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이해하는 사회구성주의도 비판한다(김환석, 2011). 대신 이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동식물, 환경, 기술, 제도 등) 사물들 간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사회적 지식은 이들 간 관계, 즉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되고 확산/쇠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ANT는 이와 같이 과학적 지식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인 것에 관한 일반적 연구로 나아가면서, 이질적인 인간 및 비인간 사물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시공간 상에서 유지/변화하는가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든 비인간 사물이든 이들 간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행 또는 작동 이전에는 아무런 특성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이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된다. 즉 ANT는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을 추구하는 근본주의를 부정하고 사물들 간 상호관계성을 강조하는 관계론적 존재론과 연구방법론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김환석, 2010; 최병두, 2015).

이러한 맥락에서 ANT가 1980년대 제시된 이후 여러 선도적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으며, 또한 그 유의성을 확인한 많은 연구자들은 이 이론을 다른 새로운 연구주제들에 응용하면서 다양한 학문 분야들로 확산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이론들처럼, ANT도 그 한계와 문제점들로 인해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이론을 둘러싼 논쟁을 거치면서 ‘after-ANT’ 또는 ‘post-ANT’로 전환하게 되었다(Law and Hassard, 1999). ANT의 한계로 지적되는 가장 심각한 점은 이 이론이 현실 세계와 이 세계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관한 실제적 이론이 아니라 이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방법 또는 이를 이해하기 위한 존재론적 논의의 틀로서만 유의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개별 개념들과 관련하여, ANT는 네트워크와 같은 개념을 마치 그 자체로 주어진 실체인 것처럼 물상화시키고, 기능적, 기술적 또는 물리적 연계성(예로 글로벌네트워크, 컴퓨터네트워크, 교통네트워크와 같은)과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연계성과 흔히 혼동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인간과 비인간 사물들 간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지만 결국 인간 행위자를 비인간 사물들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연구 대상을 통제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둘러싼 논쟁들 가운데 한 주요 계기는 로(Law, 1999)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그는 1990년대 발전한 이 이론의 “핵심적 사고들이 막다른 골

목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이론의 주요 개념이나 주장들을 재검토하면서, 그 동안 당연시 되었던 이 이론의 언어와 개념적 틀을 수정하거나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로, 그는 ANT의 위상학적 가정들이 공간적 및 관계적인 사회-물질적 사건들에서 복잡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획일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에서 로와 몰(Law and Mol, 2001)은 ANT가 비판한 유클리드공간(또는 ‘지역적 공간’)에 대한 대안으로 ‘네트워크 공간’에 더하여 ‘유동의 공간’과 ‘화염의 공간’ 등 위상학적 모형들을 추가했다. 그 이후 ANT 이론가들은 이처럼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 한편 대중화시키는 작업들을 추진해 왔다(예로, Latour, 2005; Mike, 2016), 또한 이 이론에 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었고,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도시학, 조직론, 관광학, 환경론 등 다양한 학문 영역들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영역들에서 연구자들은 ANT와 관련된 도전적 의문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유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이 이론의 사고들을 확장시키고 재편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ANT는 다양한 학문분야들에서 여러 연구주제들에 응용되고 있다. 김환석(2009; 2011)의 논문들과 홍성욱(2010a)의 편저서는 이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는 주요한 문헌이 되었고, 이 이론을 다양한 학문분야들에 응용하려는 시도를 고취시켰다. 이에 따라, ANT에서 제시되거나 관련된 주요 개념들, 예로 이동성과 로컬리티, 위상학적 공간, 아상블라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제시되기도 했으며(장세용, 2012; 최병두 2015; 김숙진, 2016), 또한 다른 이론이나 사고들(예로 페미니즘, 사변적 실재론 등)과의 동맹 또는 접점을 탐구하는 연구들도 발표되었다. 또한 이 이론은 사회학, 지리학, 정치학, 행정학, 문화콘텐츠학, 교육학, 환경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들에서 과학과 자연 간 관계 고찰, 기술표준 설정과정에 관한 설명, 남북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세부주제들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담론 분석, 학문적 정체성 탐구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이제 국내 학계에서도 ANT는 전공학문 분야들 간 벽을 허물고 수많은 이질적 비인간 사물들에게도 행위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방

법론과 주요 개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분위기 속에서 최근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여러 주제들에 ANT를 응용한 연구들도 시도되면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는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 여성이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겪은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에 관한 연구(이희영, 2012), 아시아 여성 이주자들을 사례로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에 관한 분석(이희영, 2014), 노동-유학-자녀교육의 동맹에 초점을 두고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이주-정착-귀환 과정을 고찰한 연구(이민경, 2015), 이주민선교센터에서 형성된 행위자-네트워크 고찰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특성과 역할을 살펴본 연구(이민경, 2016), 결혼이주여성의 한국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미디어테크놀로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김연희, 이교일,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전개되는 서비스 조직의 안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주변화에 관한 연구(김연희, 2017), 그리고 초국적 이주노동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형성·전환되는 행위자-네트워크와 아상블루주들에 관한 연구(최병두, 2017a),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에서 형성되는 음식-네트워크와 초국적 이주자의 경계-넘기에 관한 연구(최병두, 2017b) 등이 포함된다. 사실 초국적 이주 연구에 ANT를 응용한 연구 사례를 서구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국내 연구 성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도 이제는 ANT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이를 응용한 경험적 분석이 널리 확산된 상황에서 ANT 자체를 다시 개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NT의 특성과 주요 개념들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들이 어떻게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연구자들에 따라 ANT는 다양하게 특징 지워진다. 예로 홍성욱(2010b)은 ANT를 7가지, 즉 ① ANT는 (이분법적) 경계를 넘고, ② 비인간에게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③ 네트워크가 행위자이며, ④ 네트워크 건설과정이 번역이고, ⑤ 네트워크를 잘 기술하는 것이 좋은 이론이며, ⑥ 권력의 기운과 효과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⑦ 민주주의를 위해 열려 있는 '사물의

정치학'이라는 점으로 정리한다. 김환석(2011)은 ANT의 특성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동등성 또는 대칭성, 그리고 이질적 네트워크의 효과 등을 강조한다. 박경환(2014)도 비슷하게 ANT의 핵심적 특성으로 네트워크의 효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질적 요소들의 대칭성, 그리고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해 생산되는 집합적 구성물 등에 주목한다. 다른 한편, 머독(Murdoch, 1998)은 ANT가 가지는 핵심적 유의성으로, 첫째 자연/사회, 행동/구조, 국지적/지구적인 것과 같은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며, 둘째 유클리드적 공간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공간 또는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ANT의 특성에 관한 이러한 기존 연구를 고려하여, 여기서는 ANT가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3가지 주요 개념적 특성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는 ANT에서 제시된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다른 개념들(예로, 블랙박스, 아상블라주 등)에 준거하여 행위와 구조 간 이분법을 벗어나고 관계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흔히 논의되는 네트워크들의 역동적 형성과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번역과 동맹의 개념 등이 유의하다. 셋째, ANT에서 명시적으로 논의되는 위상학적 공간 개념은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항상 수반되는 공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를 새로운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절은 ANT의 관점에서 이러한 3가지 개념적 특성들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초국적 이주 연구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가를 논의할 것이다. 물론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ANT의 3가지 개념적 특성의 제시는 이들을 응용한 연구들이 아무런 문제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행위자-네트워크와 초국적 이주

ANT의 구성에서 가장 우선 강조될 개념은 인간과 비인간을 포괄하는 행위자 개념이다. 즉 이 이론은 인간과 더불어 비인간 사물들도 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들로 규정한다. 전통적 의미에서 행위자는 항상 의도적인 인간 행위자를 지칭하지만, 이 이론에서 행위자는 스스로 행위를 하거나 타자에 의해 행위성이 부여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행위자는 비인간 행위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즉 모든 객체들과 이 객체의 부분들, 예로 신체, 박테리아, 식물, 바람, 기억, 텍스트, 기술, 화학물질 등은 인간 행위자와 마찬가지로 함께 연결될 수 있으며,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행위자들을 변화시키고 또한 이들에 의해 변화한다. 이와 같이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한 위상을 가진다는 가정은 대칭성(symmetry)이라고 불린다(Latour, 1987). ANT에서 이러한 행위자의 개념과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 간 대칭성은 인간과 사물의 이분법뿐 아니라 행위와 구조, 미시와 거시, 사회와 자연 등의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한 개념적 장치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ANT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행위와 구조의 이중성을 통해 이들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조화이론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ANT에 대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이 이론이 행위의 차원에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인간적이고 주관적인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칭성의 관점을 수정하여, 인간은 스스로 의도된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Murdoch, 1998). 그러나 이 이론은 행위를 유발하는 의식적 의도에 뿌리를 둔 행위능력의 개별적 근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 상호작용하는 요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하는 힘에 초점을 둔다. 즉 행위는 의식의 완전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Latour, 2005, 44). 달리 말해, 어떠한 행위자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능력은 고립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항상 그 행위자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많은 실제적 및

잠재적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 즉 ‘관계적 효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은 ANT의 중심축이 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는 개별 행위자들 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해되거나, 교통망처럼 연결된 관계망을 의미하거나 또는 제도적 상호관계(예로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 또는 조직구조(본사와 분공장)를 지칭하기도 한다. ANT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은 이러한 관계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네트워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교통통신망과 같은 어떤 기술적 연계망이나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로서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 사물들로 구성되는 수많은 이질적 객체들 간에 형성된 혼종적 상호관계 또는 이에 따른 질서를 의미한다. ANT는 기존의 ‘네트워크’ 개념이 가지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들뢰즈의 용어로 리즘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ANT는 “근대 사회가 지위, 계층, 영역, 범위, 범주, 구조, 체계라는 관념을 사용해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사회가 섬유 모양의, 실과 같은, 철사 같은, 끈 같은, 밧줄 모양의, 모세관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식해야만 근대 사회를 충분히 기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투르, 2010: 99-100).³

ANT의 함의에 따라 정의하면, 네트워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체들 간의 비구체화된 관계들의 집합을 말한다. 네트워크는 행위자들 간 연계를 통해 형성되지만, 또한 그 결과로 행위자의 특성을 규정한다. 즉 행위자와 네트워크는 서로 지속적으로 규정하고 재규정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 의존한다.⁴ 따라서 행위자와 네트워크는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모든 행위자는 또한 동시에 네트워크이며, 모든 네트워크도 어떤 행위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행위자-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은 개별 행위자들, 즉 인간과 더불어 지식, 제도, 조직, 사회(구조) 등 비인간 사물들을 이들

3 라투르(2010: 100)에 의하면,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데카르트적인 물질과 영혼의 구분을 피하기 위해 이들 간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메타포로 바뀌었다고 한다.

4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을 네트워크에 연계시키고 해당 네트워크 자체를 규정하는 고리역할을 담당하는 매개자의 역할도 인정된다. 즉 “매개자는 연결망 내에서 각 행위자의 위치를 규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행위자들과 더불어 해당 연결망 자체를 구성한다(김환석, 2009: 879-880).

간에 형성된 이질적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하는 상호관계의 결과로 인식한다. 즉 행위자들은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따른 효과로 그 특성이 생성 또는 규정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의 효과(network effects)로 이해된다. ANT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등장하여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이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행위자-네트워크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함께 모아서 새로운 결합체, 즉 아상블라주(assemblage)를 구성한다. 예로 컴퓨터나 자동차는 하나의 물체로 인식되지만, 이들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수많은 부품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어떤 행위자-네트워크가 안정된 질서로 작동할 때, 이를 '블랙박스'가 되었다고 하고, 이러한 이질적 네트워크들이 접혀져서 하나의 행위자나 객체로 축약되는 것을 '결절'이라고 부른다(로, 2010: 47). 블랙박스의 개념은 이질적 사물이나 요소들로 구성된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네트워크가 마치 하나의 행위자처럼 단순화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ANT는 우리가 흔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사실'이 실제 '블랙박스'이며, 이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는가를 치밀하게 추적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해 일시적으로 구성된 집합체를 설명하기 위해 들뢰즈와 가타리(Deleuze and Guattari)에 의해 제시된 아상블라주의 개념이 도입된다(김숙진, 2016; Muller, 2015). ANT에서 아상블라주는 이질적 행위자들의 일시적 묶음 상태를 의미하며, 어떤 조직체가 인간 및 비인간 사물들의 네트워크로 편성된 다중적 집합체임에도 이들이 어떻게 블랙박스로 간주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여러 개념들은 초국적 이주 연구에 중요한 개념적 기반을 제공하며, 또한 경험적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 관계이론들은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연계망 또는 네트워크들을 경험적으로 고찰할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행위/구조, 거시/미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계이론들의 준거를 제공했던 구조화이론이나 사회연

계망이론은 ANT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발판이 된다. 특히 이 이론들에 의하면, 행위 차원의 행위자뿐만 아니라 구조 역시 어떤 매개 역할을 담당하는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자와 구조는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중성 즉 대칭성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들의 특성은 이들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식된다. 그 외에도 관계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여러 이론들은 국제이주가 전개되는 사회구조의 조건이나 규정력을 간과하고 이주 주체로서 개인이나 개별 사회집단(예로, 국가, 지역, 인종집단 등)에 초점을 둔 연구의 오류, 또는 반대로 행위자들의 상대적 자율성을 무시하고 국제이주가 전개되는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체계나 배경에만 주목하는 연구가 안고 있는 딜레마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이론들은 행위와 구조의 관계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다소 모호할 뿐 아니라 이를 설명하거나 반영한 개념들이 다양하고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ANT에서 이러한 모호성이나 혼란은 상당히 해소된다. 이 이론에서 네트워크는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사물들, 예로 가족, 원주민, 임금, 비자, 정보, 국가 등과 같이 수많은 이질적 객체들로 구성된 연결망 또는 이에 따른 질서나 정렬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간과 함께 비인간 사물들을 포함하는 행위자와 이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형성/유지/변화하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로 초국적 이주자들은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같은 지역이나 국가 출신 이주자들, 그리고 이주유입국의 선주민들과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뿐 아니라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또는 직접 네트워크 구성에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나 기관, 물질적 및 비물질적 사물들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이희영(2012)은 북한 여성 난민과 조선족, 남한 남성과 같은 인간 행위자뿐만 아니라 입양 및 결혼제도, 나아가 결혼 중개업체라고 하는 조직이 결합하여 동아시아 3국을 배경으로 초국적 이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이민경(2015)은 몽골 이주노동자들의 이동을 자녀교육이라는 매개자와의 연관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개입

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을 응용한 연구들은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되는 네트워크의 특성 자체를 고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인간 행위자들은 대체로 인간 행위자들을 연계시키는 매개자(즉 매개적 행위자)로 인식된다. 예로 이희영(2014)은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는 한국 남성과 아시아 여성들 간 국제결혼이 어떤 매개자 없이 전개되는 일방적 흐름이 아니라, 이와 교차하는 이주/유학 및 역이주, 관광정책과 관광산업 간 연계, 세대문화와 한류 등을 매개로 형성되는 복합적인 행위자-네트워크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유사한 맥락에서 김연희·이교일(2017)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이주·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미디어테크놀로지(예로 TV,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가 보다 중요한 매개적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고찰한다. 하지만 ANT를 응용한 연구에서, 실제 다양한 유형의 사물들은 그 자체로서 인간들과 다른 사물들을 연결시키는 매개자일 뿐 아니라 이러한 매개적 연계를 통해 인간 행위자들의 생활양식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예로 최병두(2017b)는 초국적 이주 가정에서 구성되는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예로 자연환경, 음식재료, 요리방식과 취사도구, 기타 관련 정보 등)의 음식-네트워크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통해 음식-만들기와 음식-먹기가 어떻게 네트워크의 효과로서 인간 행위자들 간 관계를 변화시키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ANT와 이를 응용한 초국적 이주 관련 연구들은 이에 관한 기존의 관계이론들이 가지는 개념적 모호성, 특히 네트워크의 개념의 피상적 다중성과 모호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ANT는 행위자의 개념에 비인간 사물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인간/사물, 사회/자연의 이분법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이 과연 행위와 구조의 이분법을 완전히 해소했는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구조화이론에서 구조의 이중성이 행위/구조의 이분법을 극복하지 못한 것처럼, ANT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의 대칭성 개념은 비인간 사물들과 구분될 수 있는 인간의 의도나 주체성을 간과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

네트워크로 개념화될 수 없거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구조적 속성들에 관한 연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파인(Fine, 2005: 93)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에는 현대 사회에서 훨씬 더 강고한 지속성을 가지는 후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이라고 주장한다. 같은 맥락에서, 장세용(2012: 288)은 ANT가 “강조하는 리좀적 연결망이 실제로는 개별 장소들을 잡종과 대칭적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를 획일화시켜서, 공간의 고유한 가치와 상상력, 내부의 정치적 동학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의 지적이나 비판에 대해, ANT는 인간 행위자의 의도나 주관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이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ANT는 비록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메커니즘(예로 자본 축적 과정)을 실제적으로 이론화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행위자-네트워크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제시되는 여러 개념들, 예로 블랙박스, 아상블라주 등의 개념들로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하는 것처럼 보인다. 블랙박스의 개념은 흔히 하나의 주어진 결합체로 간주되는 인간 행위자의 유형이나 사물들(제도나 구조들)이 실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치밀하게 묘사할 것은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 행위자의 관점에서 예로, 이민경(2015)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라는 호명이 블랙박스로 작동함으로써 드러나지 못하는 자녀교육을 둘러싼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다양한 삶의 과정과 경험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제도적 행위자의 측면에서, 김연희(2017)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블랙박스화된 어떤 제도의 작동과정을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제도화된 이 센터가 네트워크의 대변인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반면,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족들은 상대적으로 주변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사한 맥락이지만 다른 개념, 즉 아상블라주의 개념을 응용한 최병두(2017)는 흔히 다른 제도나 구조로 이해되는 일자리(직장), 가정, 국가라는 제도들이 실제 구조적 동질성을 가지면서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국적 노동이주과정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결합하여 구성된 다중적 결합체로서 이러한 3가지 유형의 이상블라주들에 주목한 연구는 각 이상블라주들이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어떻게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치환과 대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가를 추적할 뿐만 아니라 한 유형의 이상블라주에 결합된 어떤 행위자가 다른 이상블라주의 행위자로서 담당하는 역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그 이상블라주 전체에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고찰하도록 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ANT는 맑스주의적 이론처럼 자본주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 실체적 이론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 제도로 블랙박스화되었거나 이상블라주로 구조화된 것들(예로 자본주의, 국가 등)을 구체적인 행위자들로 해체하여 이들을 구성하는 행위자들과 네트워크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구조적 규정력을 네트워크의 효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4.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번역과 동맹, 그리고 권력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은 ANT를 특징짓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이 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경험적 연구에 응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번역과 동맹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번역은 행위자-네트워크들 간의 연결을 통해 보다 강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는데 필요한 절차이며 또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 간 연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ANT는 인간 및 비인간 사물들이 함께 결합하여, 서로 변화시키게 될 때 무엇이 발생하는가를 서술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된 한 실체는 다른 실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서로 작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작동하는 실체는 행위자(actor)로 불리며, 작동된 실체는 행위소(actant)로 불린다. 번역이란 행위소가 네트워크의 수행적 부분이 되는 것 즉 행위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번역이 성공하면, 행위소는 특정한 의도나 의식을 가지고 특정한 방법을 통해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체들은 이러한 번역과정을 통해 수많은 협상을 시행하며, 결국 서로를 번역하고자 하는 역동적 시도들을 통해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게 된다. 안정된 행위자-네트워크는 그 이면에 수많은 협상을 감추고 있음에도, 마침내 정화(또는 자연화)되고, 불변적이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Latour, 2005).

ANT의 초기 논의에서 라투르(Latour, 1988)는 구체적인 사례로 농장의 탄저병을 실험실로 옮기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지칭한다. 파스퇴르의 실험실과 관련된 번역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농장의 농부와 소떼, 이들을 둘러싼 이해관계 등 농촌사회를 실험실로 옮겨오는 번역이며, 두 번째 단계는 실험실에서 연구자들과 실험 도구 등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새로운 이해관계에 따른 행위자들의 집합체의 형성과 이를 통해 '탄저균'이 배양되는 번역이며, 세 번째 단계는 실험실에서 생산된 지식과 배양물질이 다시 여러 농장들로 옮겨져서 새로운 수행과정을 거치는 번역과정으로 이루어진다(김환석, 2011, 18-26). 라투르는 이러한 번역 개념을 통해 과학과 기술이 단지 지식이나 도구가 아니라 실험실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네트워크의 효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ANT는 이러한 번역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기술과 과학이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혼종적 결합을 통해 어떻게 출현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가를 고찰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ANT에서 번역 과정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적용된다. 예로, 칼롱(2010)은 어떤 특정 행위자-네트워크가 번역의 '계기들'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조립하고 확장시켜나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는 번역을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치환과 변형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치환과 변형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생브리외만의 가리비 양식의 수확량 증대를 위해 바다에 집어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실험을 사례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에서 칼롱은 번역의 주요 계기들로 구분되는 4단계, 즉 문제제기, 관심 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4단계 번역과정은 ANT를 응용한 경험적 연구에서 가장 일반화된 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칼롱의 연구는 네트워크의 결절들에서 발생하는 번역의 과정이 치환과 변형과정을 통해 한 실체가 다른 실체에 어떻게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그는 어떤 유형의 네트워

크는 특정 방법으로 실체들을 관계 맺도록 하는 ‘의무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칼롱의 연구는 현실의 복잡성을 왜곡(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고정된 모형으로 번역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ANT에서 번역에 관한 연구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치환 및 변환을 통해 안정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로(2010: 50-53)는 이러한 번역과정이 “우연적이고 국지적이며, 또한 가변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에 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열거한다. 첫째, 어떤 물체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영속성이 있다. 여기서 영속성은 관계적 개념으로, 어떤 물체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영속성을 가지게 된다. 둘째, 어떤 물체들은 다른 것들보다 더 이동성이 있다. 영속성이 시간에 따른 질서라면, 이동성은 장소에 대한 질서이며, 이동성 역시 불안정한 관계적 영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셋째, 만약 번역할 물체의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만 있다면 번역은 더욱 효과적이다. 예측은 관계적 결과들이 생기고 다양한 저항들이 효율적으로 제지하는 조건과 물체들에 관한 연구와 관련된다. 넷째, 질서의 범위는 흔히 국지적이라고 주장되지만, 번역의 전략들은 네트워크의 다양한 범위와 장소들에서 확대·재생산된다. 번역의 개념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 중 예측에 관한 논의는 모든 것을 네트워크의 효과로 인식하고자 하는 ANT의 기본 특성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다른 것들은 뒤에서 논의할 ANT의 공간적 함의로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ANT는 초기에 ‘번역의 사회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번역과정에 주목했으며, 그 이후에도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심화시켜 기술의 생성과 사회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자연) 간 관계의 혼종성과 역동성을 이해하는데 원용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ANT는 이러한 번역의 개념을 통해 행위자들 간 결합과 동맹에 의한 행위자-네트워크들의 확장 과정, 사회적 권력의 작동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주장된다. 즉 행위자들은 함께 모여 상호 수정과 치환하는 과정, 즉 번역과정을 통해 혼종적인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유지하며, 어떤 특정한 질서를 가지고 작동하는 집합체 또는 조립체(아상블라

주)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ANT의 목표는 “규칙성, 사회적 조화, 질서와 저항의 과정들에 대해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구, 행위자, 기관, 조직 등과 같이 질서를 생성하는 번역의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된다(로, 2010: 49). 물론 이러한 규칙성이나 질서를 이루기 위해 일시적으로 묶여 있는 부분과 조각들은 언제든지 해체·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ANT에서 질서나 조화를 향한 갈등에 대한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ANT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의 갈등과 동맹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예로 실험실에서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주제를 둘러싸고 더 많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지원과 지지, 즉 동맹들을 필요로 한다.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번역의 사슬을 유지하고, 네트워크에 가입된 행위자들을 함께 단결시키며, 또한 동맹을 부수려는 시도들에 대해 저항하게 된다. ANT에 의하면, 어떠한 것도 본연적으로 강하거나 약하지 않으며, 다른 동맹들과의 결합에 의해 강하게 되어 확장되기도 하고, 약하게 되어 해체되기도 한다. 이러한 동맹의 여부와 강도는 번역의 계기에 좌우되며, 결국 행위자-네트워크의 지속성과 이동성을 규정한다. 동맹들과의 결합을 통해 네트워크가 충분히 지속가능하게 될 경우, 번역은 이동과정을 통해 다른 입지나 영역들로 확대된다. 행위자들은 넓은 범위의 공간과 시간에 걸쳐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동맹자들을 모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번역할 수 있다. 동맹자들과 네트워크들이 많을수록, 그 네트워크의 권력은 더 강해지고, 시공간적으로 더 큰 지속성과 이동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ANT에서 권력은 사회적·물질적 관계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된 시공간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이라고 주장된다(로, 2010).

ANT를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의성들 가운데 하나는 번역과 동맹의 개념을 활용하여 초국적 이주의 역동성과 권력 관계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NT는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선형적이거나 주어진 실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협상과 번역의 산물로 인식한다. 한 행위자-네트워크에 등록된 행위자들은 다른 행위자(즉 행위소)와 연계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수정·치환·변형시킨다. 행

위자들이 서로를 번역하고자 하는 이러한 역동적 시도들은 그 네트워크를 안정화시켜서, 마침내 자연화되고, 정화되고, 불변적이며,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블랙박스가 되도록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행위자들 간에는 타협을 통한 안정된 질서의 구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상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긴장과 저항을 초래하여 네트워크의 불안정성이나 궁극적인 해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ANT는 이와 같이 행위자-네트워크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 간 상호 작동, 즉 번역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그 행위자-네트워크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생성·유지·변화·소멸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번역의 개념은 초국적 이주에 관한 기존의 관계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유의한 개념이다. 특히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형성·작용하는 행위자-네트워크는 고정된 또는 불변의 관계가 아니라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역할 등에 따라 끊임없이 치환되고, 변형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희영(2012)은 한 행위자가 이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번역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소로 치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 “사회주의 여성 영웅을 꿈꾸던 한 북한 여성은 초국적 이주의 번역 과정에서 식량난민, 입양된 조선족 양딸, 조선족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남한사회의 조선족 이주노동자, 북중 국경지역을 오가는 밀수 상인, ‘사람장사’를 하는 브로커, 탈북 여성, 대한민국 대학생 등 서로 상반된 지위와 국적, (비)결혼상태, 직업, 역할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형성하는 다양한 정체성의 변위(transposition)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한 인간 행위자는 성공적인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치환하고 전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병두(2017a)는 초국적 노동이주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행위자-네트워크와 이상블라주의 번역 과정과 이 과정에서 편성·해체·재편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위상학적 공간들을 분석함으로써 초국적 노동이주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에 의하면, 초국적 노동이주과정에서 일자리 이상블라주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번역의 사슬’을 통해 이주의 전 과정 동안 지속적으로 변해간다.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관련된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과 수많은 협상을 시행하고, 좀 더 안정된 상태의 행위

자-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이주자는 안정된 일자리 이상블라주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을 수정·치환시키고자 하지만, 이들 간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상블라주(예로 가정 및 국가 이상블라주)에 속하는 행위자들의 개입으로 인해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사례에서처럼, 번역의 개념은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형성되는 행위자-네트워크들의 복잡하고 변덕스러운 구성과 변화과정을 서술하기에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번역의 개념과 더불어 동맹의 개념 역시 ANT가 초국적 이주에 응용될 수 있는 유의한 단초들을 제공한다. 동맹은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끌어들이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확대 또는 변화시키기 위한 행위자들 간 관계를 의미한다. 칼롱(2010)에 의하면, 번역의 한 단계인 관심끌기는 “잠재적으로 경쟁하는 모든 연합들을 가로막고, 자신만의 동맹 체제를 건설”하는 것으로, 관심끌기를 통해 행위자-네트워크에 등록된 관계, 즉 동맹 관계의 구축은 번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행위자-네트워크를 안정시키는 핵심적 계기가 된다. 또한 이러한 번역의 계기들, 즉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로 구성된 동맹군 동원하기에 따라, 그 행위자-네트워크 내에서 행위자의 위상은 달라지며, 또한 행위자-네트워크의 지속성과 강도도 결정된다. 즉 ANT에 따르면 한 행위자의 권력은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과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에 좌우된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것도 본연적으로 강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동맹들과의 조립에 의해 강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번역과 동맹의 개념은 초국적 이주 연구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로, 최병두(2017a)는 초국적 노동이주과정에서 되풀이되는 일자리 이상블라주의 번역과정에서 어떠한 동맹들이 동원되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권력관계가 작동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최병두(2017b)에 의하면,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는 이를 형성·재형성하는 과정에서 미시적 권력(또는 애착) 관계를 내포하며, 이러한 점에서 음식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이 교차하는 권력의 장을 형성한다. 또한 김연희(2017)은 다

문화가족지원센터를 둘러싸고 형성되는 행위자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의 주체적 실천과 이러한 실천행위가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행위자들 간의 동원 또는 동맹맺기를 통해 자신들의 목적과 정체성을 협상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ANT는 초국적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구축되는 행위자-네트워크 또는 이상블라주의의 이면에서 어떠한 권력 관계가 전개되고 변화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의하게 응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ANT에서 제시된 번역과 동맹의 개념은 그 자체로서 또는 초국적 이주에 관한 연구에 응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나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예로, ANT를 다른 연구 주제들에 응용하고자 할 경우, 흔히 번역의 네 가지 단계(즉 문제제기, 관심 끌기, 등록하기, 동원하기)를 도식적으로 대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하게, ANT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 확인될 수 있는 차이(상이한 행위자들과 과정들 간 또는 그 내부의 상이한 관계 유형들)를 모호하게 하고, 이로 인해 비정치적 관점으로 비판될 수 있다(Bosco, 2006). 그러나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여 차이 또는 격차 자체를 하나의 제도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이를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로, 이희영(2014)은 국제결혼이주에서 한-조선족, 한-캄보디아 결혼의 경우 양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이주의 주요한 행위요소로 작동하는 반면, 한-일, 한-중 결혼의 경우는 젠더 위계가 더욱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여성들의 결혼 유형(연애결혼, 중매결혼)이 한국 사회의 차별문화에 의해 '계층적' 위계로 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5. 초국적 이주에 대한 위상학적 접근과 네트워크 공간

ANT는 다른 사회이론들과는 달리 공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킨다. 이 이론을 원용한 일부 연구들에서 이러한 점이 간과되기도 하지만, 로와 몰(Law and Mol), 칼롱(Callon), 머독(Murdoch)과 같은 선도적 연구자들은 이 이론에 함의된 공간적 측면에 매우 민감하다(Mol and Law, 1994; Law and

Mol, 2001; Law, 2002; Callon and Law, 2004; Murdoch, 1998; 2006 등 참조). 물론 ANT에서 다루고자 하는 공간의 개념은 기존의 전통적 지리학이나 서구적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유클리드적 또는 절대적 공간 개념이 아니라 위상학적, 관계적 공간 개념이다. 이러한 공간 개념은 행위자와 네트워크의 개념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ANT에서 행위자나 네트워크는 절대적 또는 근본적인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며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그 효과에 따라 특성을 가지는 것처럼, 공간은 행위자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생성·유지·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유클리드적 공간관에서 규정되는 “근접성과 거리에 대한 정의는 ANT에서는 쓸모가 없거나 아니면 ... 연결의 한 유형이나 네트워크의 한 유형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라투르, 2010: 102-103).

ANT에서 제시된 네트워크의 개념은 기존의 공간관에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여러 공간적 사고들, 예로 멀고 가까움, 크고 작음, 내부와 외부 등의 차이를 제거 또는 극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클리드 공간관에 대한 대안으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 부각된다. 즉,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행위자들의 공간성은 유클리드 공간에서 주어지는 자신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 네트워크 연계 내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 또는 위상과 관련된다. 예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요소들은 그 연결을 분석해 보면 무한히 멀어질 수도 있다. 반대로 매우 멀어 보이는 요소들이라도 그 연결을 고려하면 가까워질 수 있다”(라투르, 2010: 102). 같은 맥락에서 이 이론은 크고 작음, 또는 거시/미시의 구분을 없애거나 뛰어넘고자 한다. 네트워크 개념이 선형적인 위계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특정한 장소가 거시적인지 미시적인지에 관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물들은 흔히 표면을 경계로 내부와 외부가 구분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네트워크는 내부와 외부로 구분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경계가 없고 따라서 외부가 없다.⁵

5 네트워크에 관한 위상학적 관점에 관한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라투르는 “거시적인” 사회나 ‘외부의’ 자연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 네트워크의 단순한 위상학적 개념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즉 ANT는 “정적이고

이러한 점에서 ANT는 이질적 요소들 사이에 연계된 네트워크에 관심을 가지며, 이에 따라 연계의 형성/해체에 따른 공간의 구성과 소멸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공간(그리고 시간)은 항상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네트워크의 집합체 상태로 이해된다. 즉 공간은 네트워크화된 것이며, 네트워크는 항상 공간화되어 있다고 주장된다(Murdoch, 1998). 이러한 점에서 ANT는 절대적 공간에서 고정된 영역을 가지는 ‘지역적 공간’과는 구분되는 위상학적 공간으로서 ‘네트워크 공간’에 주목한다. Murdoch(1998)에 의하면, 네트워크가 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첫째 어떤 네트워크가 다양한 목적에 따라 형성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공간에 ‘대하여’ 작동하는 수단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네트워크들의 집합체(즉 아상블라주)는 공간을 구성하고 그 공간의 특징을 규정한다. 둘째 또한 특정한 행위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행위자들의 수행 결과는 항상 공간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즉 공간은 행위자-네트워크의 효과로 구성된다. 셋째, 행위자들과 그들의 관계는 항상 네트워크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비공간적인 유동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공간에 착근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초기 ANT 이론가들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과 이 실험실 공간에서 연계되는 사람과 사물들 간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 여기서 실험실은 인간 및 비인간(물질적 및 텍스트적) 사물들로 정렬된 활동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서술한 텍스트는 이 실험실 공간에서 생성된 지식을 타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시 농장이나 다른 장소들로 보내진다. 이와 같이 실험실 공간은 인간 및 비인간 사물들로 구성된 혼종적 네트워크의 수행으로 형성된다. 공간이 이질적 요소들 간 연계에 따른 효과로 형성된다면, 거리 역시 그러한 것으로 인식된다. 즉 가까움과 멀, 여기 또는 저기는 어떤 객체가 이동하게 되는 분리된 두 지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으로 변화하는 관계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모든 인간 및 비인간 행

위상학적인 성질들로부터 동적이고 존재론적인 것들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안한다(라투르, 2010: 106).

위자들이 그러하듯이, 사회공간적 입지와 규모는 네트워크의 관계적 효과로 이해된다. ANT에서 공간은 행위자들 간 사회적, 물질적 연계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변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공간은 유동적, 동시적, 다중적 관계들의 네트워크들에 결합된 실체들의 복합체로 이해된다(murdoch, 2006).

이러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은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 간의 구분을 폐기하고, 이들 간 연속성을 강조한다. 예로 철도는 한편으로 모든 지점들에서 국지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지점들을 이어놓으면 대륙을 횡단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구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다. 또한 공간이 네트워크의 효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러 지점들이 행위자-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연결될 경우, 미시/거시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따라서 미시적/거시적, 국지적/지구적 공간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생성된 스케일의 효과로 이해된다. 지리학에서 최근 흔히 사용되는 스케일(scale)은 공간적 규모를 의미하지만, 여기서 공간은 절대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 즉 스케일은 본래부터 주어진 어떤 절대적 크기나 층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일련의 복잡한 연계 또는 네트워크들을 통해 상이한 작동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스케일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이해한다(박경환, 2014). 이러한 점에서 ANT는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통해 절대적 공간에서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공간적 규모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위상학적 공간관은 유클리드공간과는 대비되는 공간적 개념들을 만들어 낸다. 예로, ANT에 따르면, 유클리드공간에서는 이동하지만,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불변적인 사물을 관찰할 수 있다. 항해하는 선박은 항법사와 선원, 선박 자체를 구성하는 선체와 돛대, 항해를 가능하게 하는 바람, 바다 등 다양한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사물로, 이러한 구성에 따라 네트워크 공간을 형성한다. 항해하는 선박은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동하지만, 그 형태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불변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불변의 이동체(immutable mobiles)(Latour, 1987)라고 불린다. 불변의

이동체는 어떤 장소에서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동하기에 충분한 견고성을 가진다. 달리 말해, 불변의 이동체는 공간의 구성과 이동에서 번역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 네트워크들이 변함없이 유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불변의 이동체는 네트워크 내 모든 관계들이 언젠가는 통과해야 할 ‘의무통과지점’이 된다.

ANT에서 이러한 불변의 이동체와 의무통과지점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는 권력 관계에서 중요한 동력이 된다. 물론 모든 행위자-네트워크들이 견고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모든 행위자-네트워크들의 연계성은 언젠가 파괴되고, 치환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시공간 속에서 지속되는 불변의 이동체들은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통해, 즉 구성 요소들의 번역과 특정한 방법에 따른 연계와 기능의 수행을 통해 그 권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번역의 공간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ANT에서 처방의 공간(space of prescription)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공간은 번역이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수행되는 네트워크 공간으로, 어떤 중심적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을 완벽하게 대변함으로써 행위자들 간의 관계가 표준화·규범화·안정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협상의 공간(space of negotiation)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공간은 행위자들과 매개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일시적, 유동적, 발산적이어서 언젠가라도 해체되거나 다른 네트워크로 치환될 수 있는 공간을 의미이다 (Murdoch, 1998).

이러한 네트워크 공간과 불변의 이동체라는 개념은 예로 파스티르의 실험실과 다른 외부 현장들 간에 성공적 번역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개발되고 전달되는가를 설명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몰과 로(Mol and Low, 1994; Law, 1999)는 사회-물질적 사건들의 복잡성에 접근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공간에 대해 선형적인 네트워크 모형을 부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역적 공간 및 네트워크 공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공간적 메타포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즉 이들은 네트워크가 흔히 통로나 관(pipeline)과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공간도 이러한 선형

이미지를 가지도록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이들은 행위자-네트워크의 형성과정에서 번역된 행위자들이 이전의 것과 같지 않으며, 유사하지만 또한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 공간과 ‘가변의 이동체’ 개념을 제시한다. 또한 로와 몰(Law and Mol, 2001)은 ‘가변적 비이동체’의 공간으로서 화염의 공간을 제안한다. 이 유형의 공간은 사물들이 지역적 공간에 머물러 있지만,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변화하는 공간으로, 일정한 위치에서의 출현과 부재 간의 불연속적인 전환으로 특징 지워진다(Callon and Law, 2004).

이와 같이 ANT에 함의된 위상학적 공간 개념과 여러 공간 유형들은 그 자체로서 유의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요하지만(최병두, 2015), 특히 ANT를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함에 있어 또 다른 유의성을 제공한다. 즉 이러한 공간적 측면에서 ANT를 응용한 초국적 이주연구는 초국적 이주의 공간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간 개념, 즉 유클리드적 공간 개념을 넘어서 다양한 새로운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초국적 이주에 관한 국내 초기 연구에서 (관계이론을 전제로 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공간은 그렇게 주요한 연구주제가 아니었다. 이러한 점을 포착한 최병두 외(2011)의 연구는 초국적 이주와 정착 과정이 기본적으로 공간적 배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문화공간’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 이후 다문화공간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되게 되었고, 초국적 이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초국적 이주자들의 유출국/유입국 간 이주경로나 유입국에서 이들의 공간적 분포뿐만 아니라 초국적 이주자들이 형성하는 지역적 및 국제적 네트워크의 구성이나 이들의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위치지우는 경계공간 또는 ‘사이’공간의 개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공간을 고찰하고자 했다(윤인진 외, 2010; 정병호·송도영, 2011).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공간의 개념은 초국적 이주의 공간성 또는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공간들을 지칭하고자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지만, 실제 어떤 구체적 내용들로 구성 또는 개념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ANT는 명시적으로 행위자-네트워크의 공간성을 논의하면서, 그 개념적 기반을 체계화하고 또한 다양한 유형의 공간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ANT는 전통적인 지리학적 공간개념, 머독(Murdoch, 1998) 등은 ANT가 새로운 종류의 지리학을 창출하면서 공간에 관한 비판적 분석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ANT가 초국적 이주와 관련된 공간 연구에 가지는 유의성은 이 이론이 거시/미시적, 지구적/국지적인 것의 이원론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이 이론을 '유클리드주의와 전쟁을 치루기 위한 기계'라고 지칭할 정도로 절대적 공간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공간적 사고들을 만들어내 고자 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ANT에서 제시되는 공간 개념은 다른 주요 용어들 예로 행위자와 행위-네트워크, 그리고 번역과 동맹(그리고 권력)의 개념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성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ANT에서 논의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은 절대적 공간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네트워크 공간과 더불어 다른 여러 유형의 위상학적 공간 유형들을 제안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ANT는 초국적 이주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용될 수 있다. 우선 초국적 이주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뿐 아니라 이를 통한 새로운 공간의 창출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즉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와 공간은 함께 생성된다. 따라서 각 네트워크는 구성에 사용된 다양한 물질들뿐만 아니라 조합된 요소들 간에 설정된 관계들을 반영하는 그 자신의 특정한 공간-시간을 추적"한다고 주장될 수 있다(Murdoch, 1998: 361). 달리 말해, 공간(그리고 시간)은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되며, 다양한 종류의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 공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들, 즉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들 '따라가야' 한다(Murdoch, 2006: 73). 물론 네트워크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형성되지만, 이들은 항상 공간에서의 행동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단의 네트워크들은 공간과 시간(즉 이동성과 지속성)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점에서 공간은 부분적으로 물리적이지만, 또한 관계적으로 형성·유지·변화한다. 또한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흔히 거론되는 국지적/지구적인 것은 분리된 성질이 아니라 네트워크들이 만들어내는 스케일의 효과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다.

ANT가 유클리드공간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 우선 제시한 개념이 네트워크 공간이다. 네트워크 공간에서 근접성은 물리적 거리의 계측에 의해 측정되지 않으며, 네트워크 요소들과 이들이 함께 묶이는 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형성되는 공간은 우선적으로 네트워크 공간이다. 초국적 이주자들은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지만 아무 연계가 없는 유입지역의 원주민들 보다는 멀리 떨어진 고향의 가족이나 친척들과 더 가깝게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는 단순한 공간이라기보다 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또는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따라서 한 장소는 이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네트워크들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예로 이민경(2016)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동체인 B시의 이주민 선교센터의 공간적 특성을 ① 목적성과 수단성의 교차적 공간, ② 갈등과 협상의 접촉지대적 공간 ③ 이주순환의 허브적 공간 3가지로 범주화하고, 이주민 선교센터가 단순히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물리적 공간”일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선교를 위한 종교적 결사체” 등으로 정화되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블랙박스를 해체하여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에 의한 잡종적 결과로서 이주공간이 진화되고 재구성된다고 주장한다.

ANT를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함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는 이동성의 개념이다. 오늘날 세계화 과정에서 상품이나 자본, 기술과 정보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초국적 이동은 공간과 시간을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국민국가를 전제로 한 국가 및 영토의 개념은 한계를 가진다. 즉 어떤 사회(또는 국가)는 고정된 영토나 입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위와 수준에서 이동하는 순환적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어리, 2014). 여기서 공간은 한편으로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만 또한 동시에 네트워크 공간을 가정한 다. 특히 물리적 공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이동성은 네트워크 공간에서는 ‘불변의 이동체’가 될 수 있다. 오늘날 물리적 이동성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이주에서 생성되는 여러 유형의 이상블라주들이 불안정한 상

태로 지속되는 것은 이러한 불변의 이동체 개념에 유추하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ANT에서 제시된 공간 개념을 초국적 이주 연구에 보다 세밀하게 응용하고자 할 경우, 지역적 공간이나 네트워크 공간 외에 다양한 유형의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로 최병두(2017a)는 초국적 이주노동자들이 이주과정에서 형성하는 여러 유형의 행위자-네트워크 또는 이상블라주와 이들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형성·변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위상학적 공간들에 주목한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초국적 이주노동자들이 빈번하게 되풀이하는 직장 이전은 결국 일자리 이상블라주가 동일하지만 또한 약간씩 다른 유동성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예로 초국적 이주자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형성하는 정체성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부모세대의 경험과 학습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재의 출현’ 공간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또한 최병두(2017b)에서는, 결혼이주자 가정의 음식-네트워크는 다중적·다규모적으로 형성되는 초국적 음식문화의 공간적 이동성과 장소성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형성된 음식-네트워크에서 혼종적으로 재현되는 본국 음식문화는 위상학적으로 ‘유동적 공간’ 및 ‘부재의 출현’을 표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ANT에서 제시된 공간 개념을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물론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로 ANT는 국지적인 것과 지구적인 것을 연속체로 이해함으로써 공간의 계층성이나 위계적 질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장세용, 2012), 특히 공간에 내재된 모순(예로 하비가 주장하는 국가의 영토적 논리와 자본의 세계화 논리 간 모순)이나 중층성을 간과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ANT는 장소나 영토에 기반을 둔 사회(예로 근린사회, 또는 국민국가)의 개념이 전혀 무의미해 진 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이 특정 장소나 영토에 고정된 것이 아니며 또한 특정한 경계에 의해 폐쇄된 것도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사회는 이동체이고 개방된 다규모적 네트워크로 구성된다는 점이 적절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ANT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 지나치게 다양한 설

정될 경우, 현실 분석에 혼돈을 초래하면서 단순한 공간적 메타포로 전락할 수 있다(최병두, 2015). 이러한 점에서 위상학적 공간 개념과 그 유형들은 추론을 통해 제시되기보다는 경험적 분석에의 응용가능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될 수 있다.

6. 결론

근대 사회이론이나 철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점은 인간과 사물(주체와 객체), 행위와 구조, 사회와 자연, 미시와 거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드러난 이원론의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초국적 이주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관계이론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여러 이론들은 이와 같은 이원론적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행위와 구조 간 연계성에 주목하면서, 이원화된 행위이론과 구조이론을 통합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이론들의 시도도 행위와 구조의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경험적 연구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관계성(또는 연계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분석하거나 이해하고자 했지만, 실제 관계성에 관한 용어들의 개념 정의와 접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 관계성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들을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으로 통합한 ANT를 대안적 이론 또는 연구방법론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관계이론들의 유의성과 한계를 논의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ANT의 주요 개념들이 어떻게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하였다. ANT를 초국적 이주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바탕과 경험적 통찰력으로 응용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개념들은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 번역과 동맹의 개념, 그리고 위상학적 공간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ANT를 응용한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들이 강조될 수 있었다. 첫째 ANT에서 가장 핵심적 개념은

인간과 비인간 사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대상들을 행위자로 인식한다는 점과, 이들 간에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효과로 행위자들의 특성을 규명할 수 있다는 점을 개념화한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이다. 이 개념은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위자-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능력을 수행하면서 일정한 효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추적하도록 한다.

둘째, ANT는 초국적 이주에 관한 기존의 관계이론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번역과 동맹의 개념을 통해 행위자-네트워크에서 한 행위자가 어떻게 다른 행위자들을 등록하거나 치환 또는 변형시키는가를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권력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며, 또한 이를 통해 행위자-네트워크가 어떻게 확장/축소되는가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번역과 동맹의 개념은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행위자-네트워크(또는 아상블라주)들이 어떻게 형성·해체·재형성(또는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되는가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질서와 조화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점뿐만 아니라 권력과 저항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ANT는 기존의 초국적 이주 연구에서 흔히 간과되는 공간적 측면을 명시적으로 부각시키면서, 특히 유클리드적(절대적)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공간과 그 외 다양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ANT를 응용한 초국적 이주 연구는 새로운 위상학적 공간의 관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공간 개념들(예로, 처방/타협의 공간, 유동성의 공간, 화염의 공간 등)과 사물의 작동과정에 함의된 공간적 특성들(예로 불변의 이동체 등)을 확인해 봄으로써 초국적 이주의 공간적 특성을 새롭게 고찰할 수 있다.

물론 ANT를 초국적 이주 연구에 응용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ANT를 응용한 초국적 이주 연구는 최소한 이주 과정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연계성들을 행위자-네트워크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초국적 이주과정에서 이러한 연계성들이 어떻게 형성·변화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번역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초국적 이주 과정에서 구축되는 위

상학적 공간들을 명시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ANT는 초국적 이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간적 주제들에 관한 연구에서 이원론적 사고를 벗어날 수 있는 혼종적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라투르(2009)에 의하면, “우리는 결코 근대인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근대적 사고나 이론체계에서 인간과 사물(사회와 자연)을 분리된 실재로 간주하는 이원론이 만연해 있지만, 실제 우리는 결코 이렇게 이원화된 사회와 자연 속에서 살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근대적 사고에 만연한 절대적 공간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한, 근대인은 자신이 머물 장소를 가지질 못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공간 개념은 (인간 및 비인간 사물이든지 간에) 행위자들이 위치 지워져야 할 장소로부터 그 행위자들을 분리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라투르(Latour, 2009)는 “근대인은 앉아서 머물 장소가 없다. [절대적 공간에 관한] 오랜 과학적 상상에서 만연한 무장소적 관점은 실질적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소 없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ANT는 이와 같이 초국적 이주 연구를 포함하여 (탈)근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공간적 현상들에 관한 연구자들에게 다소 엉뚱하지만 참신한 사고를 제공한다.

교신: 최병두(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bdchoi@daegu.ac.kr; 전화: 053-850-4155)

Correspondence: Choi, Byung-Doo(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ersity) (bdchoi@daegu.ac.kr, phone: 053-850-4155)

2017.06.09 접수, 2017.06.22 수정, 2017.06.24 게재확정

참고문헌

- 기든스, 안소니(최병두 역), 1991,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나남(Giddens, A., 1981,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Macmillan, London).
- 김숙진, 2016, 아상블라주의 개념과 지리학적 함의, 대한지리학회지, 51(3), 311-326.
- 김연희, 2017, 서비스 조직의 안정화와 서비스 이용자의 주변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

- 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9(1), 1-28.
- 김연희·이교일, 2017, 결혼이주여성의 미디어 행위자-네트워크와 삶의 전환 경험 (근간).
- 김용찬, 2006, 국제이주분석과 이주체계접근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 10(3), 81-106.
- 김용학, 1992, 사회구조와 행위, 나남.
- 김환석, 2009, 행위자-연결망이론과 사회학,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73-886.
- 김환석, 2010, '두 문화와 ANT의 관계적 존재론,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이음, 305-330.
- 김환석, 2011, 행위자-연결망 이론에서 보는 과학기술과 민주주의, 동향과 전망, 83, 11-46.
- 라투르(홍성욱 역), 2010,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관하여: 약간의 해명, 그리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이음, 95-124 (Latour, B., 1997, On actor-network theory: a few clarifications plus more than a few complications, <http://www.cours.fse.ulaval.ca/edd-65804/latour-clarifications.pdf>).
- 라투르(홍철기 역),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갈무리 (Latour, B., 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로, 존(최미수 역), 2010, ANT에 대한 노트: 질서 짓기, 전략, 이질성에 대하여, 홍성욱 편, 인간·사물·동맹, 이음, 37-52 (Law, J., 1992, Notes on the theory of the action network: ordering, strategy and heterogeneity, *Systems Practice*), 5(4), 379-393.
- 박경환, 2014, 글로벌 시대 인문지리학에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적용 가능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1), 57-78.
- 새머스, 마이클 (이영민·박경환·이용균·이현욱·이종희 역), 2013, 이주, 푸른길 (Samers, M., 2010, *Migra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석현호, 2000, 국제이주이론: 기존이론의 평가와 행위체계론적 접근의 제안, 한국인구학, 23(2), 5-37.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어리, 존(강현수·이희상 역), 2014, 모빌리티, 아카넷 (Urry, J., 2007, *Mobilities, Polity*).
- 윤인진 외, 2010, 동북아의 이주와 초국가적 공간, 아연.
- 이민경, 2015, 노동-유학-자녀교육의 동맹: 몽골 이주노동자 가정의 이주, 정착, 귀환의 행위자-네트워크, 교육문제연구, 55, 1-25.
- 이민경, 2016, 미등록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특성과 역할 연구 - B시의 이주민 선교센터 사례에 대한 행위자 네트워크, 인문사회과학연구, 17(3), 63-101.
- 이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2(1), 1-45.

- 이희영, 2014,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 아시아 여성 이주자들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2, 110-148.
- 장세용, 2012, 공간과 이동성, 이동성의 연결망: 행위자-연결망 이론과 연관시켜, *역사와 경계*, 84, 271-303.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 259-284.
- 정병호·송도영 편, 2011, *한국의 다문화공간*, 현암사.
- 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 사회에 관한 학제적, 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 1-33.
- 최병두, 2015, 행위자-네트워크이론과 위상학적 공간 개념, *공간과 사회*, 25(3), 125-172.
- 최병두, 2017a, 초국적 노동이주의 행위자-네트워크와 아상블라주, *공간과 사회*, 27(1), 156-204.
- 최병두, 2017b, 초국적 결혼이주가정의 음식-네트워크와 경계-넘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3(1), 1-22.
- 최병두 외,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칼롱, 2010,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비와 생브리외만의 어부들 길들이기, 홍성욱 편역, 2010, *인간·사물·동맹, 이음*, 57-94 (Callon, M., 1986,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en of St. Brieuc Bay' in Law, J. (ed.)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pp.196-33, London, Boston and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 홍성욱 편역, 2010a, *인간·사물·동맹, 이음*.
- 홍성욱, 2010b, 7가지 테제로 이해하는 ANT, 홍성욱 편역, 2010, *인간·사물·동맹, 이음*, 15-35.
- Bosco, F., 2006, "Actor-network theory, networks, and relational approaches in human geography," in Aitken, S. and G. Valentine (eds.), *Approaches to Human Geography*, Sage, London, 136-146.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G.(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Greenwood Press, Westport.
- Callon, M. Law, J., 2004, "Introduction: absence-presence, circulation and encountering in complex space,"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2, 3-11.
- Castles, S. and Miller, M., 1993/2009(4th edn.), *The Age of Migration*, Macmillan, London.
- Coleman, J.,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20.
- de Haas, Hein., 2008, "Migration and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International*

- Migration Institute Working Paper no.9, University of Oxford.
- Fine, B., 2005, "From actor-network theory to political economy," *Capitalism, Nature, Socialism*, 16(4), 91-108.
- Kurekova, L., 2011, "Theories of migration: conceptual review and empirical testing in the context of the EU East-West flows," Paper prepared for Interdisciplinary conference on Migration, Economic Change, Social Challenge (April 6-9, 2011, University College London).
- Latour, B., 1987, *Science in Action: How to Follow Scientists and Engineers through Society*, Harvard U.P., Cambridge, MA.
- Latour, B., 1988, *The Pasteurization of France* (trans. A. Sheridan and J. Law), Harvard U.P., Cambridge, MA.
- Latour, B., 2005, *Reassembling the Social: An Introduction to Actor-Network Theory*, Oxford U.P., New York.
- Latour, B., 2009, "Spheres and networks: two ways to reinterpret globalization," a lecture at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esign (Feb. 17, 2009).
- Law, J., 1999, "After ANT: complexity, naming and topology," in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Law, J. and J. Hassard(eds), Blackwell, Malden MA., 1-14.
- Law, J., 2002, "Objects and spaces," *Theory, Culture and Society*, 19(5/6), 91-105.
- Law, J. and Hassard, J.(eds), 1999, *Actor Network Theory and After*, Blackwell, Oxford.
- Law, J. and Mol, A., 2001, "Situating technoscience: An inquiry into spatialiti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 Space* 19: 609-621.
- Massey, D.S., Arango, J., Hugo, G., Kouaougi, A., Pellegrino, A., Taylor, J.E., 1998, *World in Motion: Understanding International Migration At the End of the Millenium*, Clarendon press, Oxford.
- Mike, M., 2016, *Actor-Network Theory: Trials, Trails, and Translations*, Sage, London.
- Mol, A. and J. Law, 1994, "Regions, networks and fluids: anaemia and social topology," *Social Studies of Science*, 24(4), 641-1.
- Muller, M., 2015, "Assemblages and actor-networks: rethinking socio-material power, politics and space," *Geography Compass*, 9(1), 27-41.
- Murdoch, J., 1998, "The spaces of actor-network theory," *Geoforum*, 29(4), 357-374.
- Murdoch, J., 2006, *Post-structuralist Geography: A Guide to Relational Space*, Sage, London.
- O'Reilly, K.,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and Social Theory*, Palgrave and Macmillan, London.
- Portes, A., 1981, "Mode of incorporation and theories of labor migration," in M.M.Kritz, C.B.Keely, and S.M. Tomasi (eds), *Global Trend in Migration: Theory and Research on*

International Movements,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New York, 279-297.

Smith, M.P., 2005, "Transnational urbanism revisited,"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1(2), 235-244.

From relational Theories to Actor-network Theory: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Analysis of Transnational Migration

Byung-Doo Choi*

Abstract This paper is to reconsider traditional relational theories in analysis of transnational migration, and to discuss actor-network theory as an alternative methodology for the analysis of transnational migration. Traditional theories or methodologies to approach transnational migration tend to be classified into 3 types, that is, action theory, structural theory and relational theory which attempts to connect those two types. The type of relational theory which includes social network theory, social capital theory, migrant networks theory, theory of migration system, and transnational migration theory has emphasized properly the connectivity between the levels of action and that of structure, but described somewhat ambiguously that connectivity and tended to use confusingly numerous terms to do so. To resolve these problems in traditional theories of transnational migration, this paper suggests actor-network theory, and explore its applicability to analysis of transnational migr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ree groups of its important concepts, that is, actor-network, translation, and topological space.

Keywords Transnational Migration, Relational Theory, Actor-network Theory, Actor-network, Translation, Topological space

* Daegu University, Professor, Geography, bdchoi@daegu.ac.kr